

디아스포라의 몸에 재현된 한국전쟁*

— 『생존자(The Surrendered)』를 중심으로

박 선 양**

차 례

- | | |
|----------------------|-----------------------|
| 1. 디아스포라 몸에 기억된 한국전쟁 | 3) 이탈리아 솔페리노: 애도의 장소 |
| 2. 공간과 '몸'성 | 와 공존하는 몸 |
| 1) 한국 고아원: 채울 수 없는 허 | 3. 전쟁 보편과 만나는 한국전쟁의 기 |
| 기와 가시 돌친 몸 | 억 |
| 2) 미국 뉴욕: 흔적 없는 정주와 | |
| 거부하는 몸 | |

국문초록

본고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이창래의 『생존자(The Surrendered)』가 한민족의 이산된 기억과 정체성, 세계문학으로서 보편성을 지녔다고 보며 한국전쟁의 기억이 담긴 디아스포라의 몸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쟁체험자가 신체 고통과 질병을 과거와 연결하여 받아들이면서 몸의 죽음으로 진정한 애도를 수행하여 주체성을 발휘했다고 보기 때문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4006).

** 군산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초빙교수

다. 이때 몸은 존재의 언어로서 의식이 표현되는 결합의 장이다. 또한 단순한 체험과 달리 성찰이 더해져 삶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의 경험 주체이다.

한국전쟁의 피난길에서 죽어가는 동생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남은 11살 준은 고아원에 가게 된다. 하지만 생존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채울 수 없는 허기 상태가 되어 폭식과 구토를 반복한다. 또 여성으로서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타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으로 대응한다. 그러다가 죄책감과 허기를 해소할 희망인 실비를 만나 그 몸성이 사라진다. 하지만 실비가 죽자 허기가 다시 되살아난다. 준은 고아원의 핵터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후 정주의식 없이 살다가 암에 걸린다. 준은 종양을 동생이자 아들, 실비와 동일시하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스스로도 과거의 전쟁기억과 함께 자신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들을 여전히 거부하는 몸성을 갖는다.

죽음을 앞둔 준은 핵터를 찾아와 과거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공유하는 기억의 접점인 이탈리아에서 죽음을 맞고자 한다. 그곳은 고통을 처벌로서 받아들이던 자신의 죽음과 과거를 함께 애도할 수 있는 장소이다. 준은 삶과 죽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몸으로 마지막을 맞는다. 『생존자(The Surrendered)』는 한국의 6월이라는 뜻을 가진 한준의 몸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실존을 기록한 것이다. 첫 장과 이어지는 마지막 장은, 전쟁의 보편을 의미하는 솔페리노에서 다시 한국전쟁의 장으로 회귀한다. 이를 통해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기억서사를 전쟁 본질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고 있다.

주제어 : 『생존자』, 이창래, 한민족 디아스포라, 한국전쟁, 기억서사, 몸, 애도

1. 디아스포라 몸에 기억된 한국전쟁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재외한인문학은 정주국과 모국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된다. 그중 국문학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을 연구할 때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한민족의 확장된 정체성, 둘째 이산된 한민족의 기억, 마지막으로 세계문학을 지향하는 한국문학의 노정과 갈래의 확인이다. 이 세 관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가의 텍스트로 재미한인작가 이창래의 2010년 출간작 『생존자(The Surrendered)』¹⁾를 들 수 있다. 『생존자(The Surrendered)』는 한국전쟁을 겪은 준이 미국으로 이주하지만 한국전쟁의 기억을 지니고 생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2012년, 평화 증진에 기여한 작품에 수여하는 데이턴 문예평화상을 수상하고 풀리처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며 한국적 소재로 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10편정도 이루어졌다. 국문학 분야의 연구는 두 편으로, 채근병²⁾은 이창래의 다른 작품 <제스처 라이프>와 함께 『생존자(The Surrendered)』를 분석하여 “전쟁 상흔으로 정체된 현재를 정리하고 과거의 시공간을 부활시켜 각자의 내면을 응시”하는 공통점을 들었다. 송명희³⁾는 『생존자(The Surrendered)』의 전쟁외상의 치명적 성격에 주목하여 전쟁에서는 생존했지만 비인간적 폭력에 굴복한

1) 이창래, 나중길 역, 『생존자(The Surrendered)』, RHK, 2013. 원제는 The Surrendered이지만 번역된 책제목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창래가 “이 책의 그토록 많은 부분이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제게 이 책은 삶을 위해 견뎌내는 의지의 힘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Lawrence Par. 4)

2) 채근병, 「이창래 소설에 나타난 시간의 구조와 혼종의 가치-제스처 라이프와 생존자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2권, 1호, 국제한인문학연구, 2013, 317-340쪽.

3) 송명희, 「이창래의 생존자에 재현된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 치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115-145쪽.

자들의 이야기로 읽는다. 영문학 쪽의 연구는 주로 트라우마⁴⁾에 집중하거나 호모 사케르⁵⁾로서 분석, 또는 한국여성의 생존⁶⁾과 저항⁷⁾에 초점을 맞추거나 작중인물 헥터와 실비의 전쟁경험에 방점을 두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전쟁기억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론,

- 4) 구은숙, 「전쟁, 이주, 트라우마: 아시아계 글로벌 서사로서 이창래의 『항복한 자』, 『미국학논집』 48권3호, 2016, 5-32쪽. 노종진, 「전쟁 트라우마와 생존을 위한 존엄한 투쟁 : 이창래의 『생존자(The Surrendered)』, 『현대영미어문학』 33권2호, 2015, 1-21쪽. 장정훈, 「외상적 기억이 남긴 상흔의 치유 : 팀 오브라이언의 『칠월, 칠월』과 이창래의 『항복자들』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22권2호, 2015, 247-269쪽. 신혜정, 「이창래의 더 서렌더드 : 집단적 외상 인식과 치유 가능성 모색, 『영어영문학연구』 55권4호, 2013, 375-396쪽. 안아람, 「기억의 서사를 통한 치유 『항복한 사람들』에 나타난 전쟁 트라우마, 『영어영문학』 30권 제4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7, 89-112쪽. 신영현은 제대군인인 헥터를 중심으로 읽고 있음. 신영현, 「전쟁과 외상, 포크너와 이창래의 제대군인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34권 4호, 현대영미어문학회, 2016, 61-85쪽. 박수정은 종교적 관점에서(보편적 의미의 자비라고 언급) 실비가 행한 자비가 모두의 구원이 되었다고 함, 박수정, 「자비의 종교: 이창래의 투항자에 나타난 투항과 구원, 『문학과 종교』 24권2호,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19, 27-49쪽.

국의 연구로는 Hsu, Stephanie의 'The Ontology of Disability in Chang-rae Lee's The Surrendered.'가 있다. 본고에서 집중한 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며 결단력을 높이 사고 있다. Journal of Literary & Cultural Disability Studies. 2013, Vol. 7 Issue 1, p19-35. 17p. 가디언지에 실린 Sarah Churchwell의 리뷰(<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0/jun/19/the-surrendered-chang-rae-lee>)에서는 우아한 문체에 비해 우연적인 사건과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을 지적한다. 특히 준의 삶이 개요만 드러났다고 보는데 필자의 생각에는 한국전쟁이라는 낯선 경험의 주체라는 점이 간과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 책을 읽는 독자를 위해 한국전쟁 등을 자세히 설명한 도움말이 존재한다. (Reader's Guide for Chang-rae Lee's The Surrendered by A Strombeck · 2015, <https://corescholar.libraries.wright.edu>)

- 5) 진주영, 「호모 사케르의 윤리 : 창래 리의 『제스처 라이프』와 『항복한 자』 연구, 『미국소설』 20권2호, 2013, 31-54쪽.
- 6) 김미현, 「이창래의 『항복자』에 나타난 생존의 의미, 『미국학논집』 47권1호, 2015, 5-27쪽.
- 7) 노은미, 「폭력의 기억 : 『항복자』에 나타난 저항의 심리학, 『현대영미소설』 18권3호, 2011, 51-72쪽.

치유와 극복의 서사라는 의의에 동의하면서, 준⁸⁾이라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몸’에 집중하려고 한다. ‘몸’에 드러난 고통이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주체의 인식 측면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작품을 보면 피난길에서 남동생은 다리가 잘려 죽고, 고아원의 동생 민도 다리를 다치고, 미국에서 얻은 아들 또한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죽게 된다. 죽음의 징후가 훼손된 몸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훼손된 다리와, 생존자인 준이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의 대비는 의미심장하다. 준은 한국에서 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미국에서는 뱃속의 종양이 자신이 돌보지 못한 영혼들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국전쟁의 기억서사에서 전쟁의 본질을 성찰하는 확산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을 뜻하는 ‘한준’의 ‘몸’에는 문체적 체험인 한국전쟁의 기억이 담겨 있다. 이후 질병으로 드러난 준의 몸은 전쟁을 애도하고 스스로도 애도 받는 죽음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따라서 본고는 『생존자(The Surrendered)』를 치유와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트라우마 서사를 넘어 몸에 담았던 전쟁체험에 대한 실존 기록으로서, 몸으로 주체적 세계를 새로이 연다고 보는 것이다.

텍스트는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첫 구절은 ‘1950년, 한국’이란 소제목 아래 첫 구절이 “이제 여행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8)⁹⁾”이다. 그런데 소제목 없는 19장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660).”로 1장의 서사가 이어진다. 1장의 마지막에서 피난길의 객차에 올라타기 위해 준이 안간힘을 쓰는 장면은 19장의 마지막에서 준이 객차에 올라타면서 완결된다. 이를 통해 준이 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지만 정주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1950년 한국에서의 삶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몸은 죽지만 죄책감을 안은 고통의 몸으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공존을 인정하는 독립적 개별자로서 주체의 의지를 지녔다는 점을

8) 한국이름은 한준이며 June으로 표기되었으며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을 뜻한다고 본다.

9) 이창래, 앞의 책. 본문 중 인용은 내각주로 인용쪽수만 표기.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죽음 이외는 출구가 없는 순환이자 원점 회귀의 서사로서 한국전쟁의 원형기억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창작된 한국전쟁 서사는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체제와 역사관 등의 ‘기억의 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¹⁰⁾. 이와 달리 『생존자(The Surrendered)』의 준은 한국전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작품의 더 큰 의의는 한국전쟁이라는 구체적 전쟁 체험을 소재로 하여 전쟁의 보편적 본질에 대한 성찰에 다다른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고는 전쟁경험 후 이산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몸’을 통해 한국전쟁의 원형을 들여다보고 존재의 언어로서 ‘몸’이 말하는 주체적 인식의 정체성을 통해 한민족의 전쟁기억과 함께 전쟁문학으로서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II. 공간과 ‘몸’성

‘몸’은 ‘몸(Momm)¹¹⁾’이라는 우리말로 육체(body)와는 다른 특징을 가

10) 이평전은 창작 활동 전 기간에 걸쳐 ‘한국전쟁’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박완서 연구에서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서 주체의 내면을 왜곡하고 개별 기억의 성찰을 불가능하게 하는 집단기억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한 바 있다.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869-895쪽.

11) 몸뚱이라고 했을 때는 체나 육을 의미하며 몸뚱이 건강을 가꾸는 것은 체육이다. 하지만 몸뚱이와 달리 몸가짐이라고 했을 때 신체가 아니라 처신이 되고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가꾸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우리말의 몸은 신체적 차원의 의미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몸은 신체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신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어였던 ‘soma’는 ‘psyche’의 반대말로 우리 내면의 직접 체험에 의해 감지되는 의식 있는 신체를 뜻한다.(Thomas Hannad의 ‘Somatics’) 따라서 엄밀히는 우리말의 몸에 해당하는 서양의 개념용어가 없다고 본다. 존 듀이도 신체와 정신의 통합체에 해당하는 영어단어가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다고 한다.(정강길, 몸학, 『화이트헤드 철학의 몸삶 적용 이론 탐구 :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몸 이해 모색』, 『한국화이트

질 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는 무의식의 발현이면서 자아의 근거이다. 영혼과 몸의 결합체인 인간은 지각하는 존재이다. 지각된 것은 흔적을 남기지만, 의식되거나 의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몸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의 장소이다. 몸은 의식과 무의식의 이중적 차원에서 자아가 드러나는 장소인 것이다.

몸은 어떤 방식에서 무의식의 장소인가? 그것은 자연 보편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물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몸이 한 영혼에 실체적으로 결합하며 주체적 개체성이 확보된다. 결국 인간의 철학적 정체성에서 몸은 그 핵심이고, 영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영혼과 몸의 결합인 한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억은 곧 몸의 기억이다. ‘몸’을 읽어내는 것은 정체성의 필수배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상, 혹은 상기는 영혼과 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의지의 결과이고 환상도 영혼의 한 양태이다¹²⁾.

특히 요하임 바우어에 의하면 통증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 몸에도 비문을 남긴다고 한다. 특히 전쟁터에서 생존한 몸은 고통이 응축된 몸으로, 손상된 이들의 몸은 전쟁을 고발하고 전쟁의 대의를 묻는 장소가 된다¹³⁾. 그런가 하면 쇼펜하우어는 신체성을 매개로 의지의 형이상학을 살필 수 있다고 보았으며¹⁴⁾,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를 향해 있으며 존재를 말하는 수단이 되는 현존재는 바로 개별자의 몸이라고 하였다. 반면 가다머는 언어가 존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다. 그때 그 언어는 해석자에게 말을 거는 타자가 된다¹⁵⁾. 이런 토대 위에서 본고는 주체적 자아로서 존재의 언어가 되는

헤드 연구』, 26권 26호,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13, 153-203쪽 참고) 연구자는 이를 참고하여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몸(Momm)은 Mind-Body 의미로 사용하며 물리적 몸은 신체와 육체로 표현함.

12) 김선영, 『데카르트에서 무의식 -몸과 기억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제39집, 2014, 269-295. 데카르트 관련 논의는 모두 이 논문을 참고함.

13) 이현주, 『몸을 통한 기억의 재현과 치유』,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4.

14) 이진영, 『쇼펜하우어의 신체개념 연구』, 『범한철학』, 제88집, 2018, 221-250쪽.

‘몸’이 건네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몸’¹⁶⁾은 의식이 표현되는 결합의 통합체로서 지칭이다.

『생존자(The Surrendered)』는 한국전쟁을 겪은 준이 한국 용인의 고아원을 거쳐 미국으로 떠난 후 뉴욕에서 거주하다가 이탈리아 솔페리노 언덕으로 죽음을 맞으러 가는 여로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순차적이지 않고 주요 인물들의 시점으로 나뉘어 서술되었다. 본고는 준의 시점을 중심으로 여로의 주요 공간을 구분하며 준의 몸을 전경화 하였다.

이에는 체험과 경험¹⁷⁾을 구별하려는 이유도 있다. 체험은 동물적 반응이며 즉물적 표출을 보인다. 이에 반해 경험은 최소한의 성찰이 더해져 인간적 대응방식을 보이고 표현된다. 한 마디로 체험이 살아내는 것이라면 경험은 겪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은 사건이자 과정으로서 삶의 지평을 드러낸다. 이때 경험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몸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전쟁을 체험하는 한국의 피난길과, 고아원, 참전국을 정주국으로 삼아 디아스포라로서 삶을 영위한, 즉 경험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주체적 경험을 택하는 이탈리아 솔페리노로 공간을 구분하여 각 ‘몸’을 분석한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기본 특성이 물리적 시공간과 기억의 시공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한국전쟁의 체험과 경험을 달리 보여주는 공간 별로 읽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보았다.

15) 이경배, 『존재의 언어와 대화의 언어』, 『범한철학』, 제88집, 2018, 123-154쪽.

16) ‘몸(Momn)’은 순우리말로 Mind-Body의 의미를 담고 있다.

17) ‘경험’은 인간의 경험인 한에서 두 가지의 특징적인 측면을 지닌다. 하나는 체험은 자신에게 매몰되는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면, 경험은 체험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또는 경험은 체험을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이다. 두 번째는 경험은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표현되지 않은 경험은 경험이 아니라는 말은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말이다. 물론 체험도 표현 되지만, 그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표출이다. 자연스러운 즉물적인 현상이라는 말이다. 경험은 이렇듯 세계의 이해와 표현을 담당하는 준개념적인 현상이다. 허재훈, 『경험의 구원 가능성과 개념적 전개』, 『철학연구』 151집, 대한철학회, 2019, 경험과 체험 관련은 361쪽 참조.

1) 한국 고아원: 채울 수 없는 허기와 가시 돋친 몸

준의 가족은 고향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피난을 떠난다. 남은 가족은 엄마와 준, 준의 동생인 쌍둥이 남매, 오빠와 쌍둥이였지만 혼자 남게 된 언니이다. 한국전쟁은 민족공동체의 삶을 가장 크게 변형시킨 사건이다. 전장으로 변해 버린 나라에서 준은 피난, 이산, 고아, 경제 파탄 등 온갖 참화를 겪는다. 전쟁은 사람에게 생존을 위해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게 한다. 고향에서 아버지와 오빠의 실종을 겪은 준의 가족에게도 생존은 유일한 가치이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은 준 가족의 피난을 더욱 고난으로 빠뜨린다. 엄마는 언니에게 남장을 시키지만 겁탈 위기에 처하고 그 딸을 구하려다가 함께 폭격을 맞는다. 겁탈 당하기 바로 직전 폭격으로 엄마와 언니의 몸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전쟁에서 목숨과 여성의 몸, 둘 다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여성은 전쟁의 이중 피해자인 셈이다. 준은 이전에 엄마가 생존 때문에 몸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모른 채 한 적이 있다. 여성의 몸이 갖는 양가성을 목격하는 것이다.

엄마가 죽은 후 준은 목숨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자신의 몸도 지켜야 한다. 피난길의 이 체험은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몸성으로 드러난다. 눈에 띄지 않으려 숨어있거나 위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까지 먹고, 누군가가 건들면 무섭게 덤벼든다.

실비 부부가 고아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준은 거의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 그녀는 나이가 많은 부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등이 굽어져 있었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했다. 그녀는 하루나 이틀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다가 다음 날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폭식을 했다. 그녀의 배는 당장에 터져버릴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생존자(The Surrendered)』, 454-455쪽.¹⁸⁾)

18) 본문은 쪽수만 표기함.

‘채울 수 없는 허기’는 죽어가는 동생을 버리고 온 준이 생존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러나 굶지 않는 환경에 있는데도 탐식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토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죽어가는 동생을 버리고 온 죄책감은 이렇게 폭식과 구토로 표현된다. 삶이 전부 차압당한 전쟁의 상황에서 육체에 불과한 몸은 그 물질성으로 드러나 가장 원초적인 먹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몸에 대한 짧은 시선조차 허용하지 못한다. 누구든 쳐다보기만 하면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부분 준보다 상대 아이가 더 큰 상처를 입지만 사내아이들에게 휩싸여 몰매를 맞기도 하고 고아원의 아주머니들에게 구박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시선에 ‘가시 돋친 몸’은 피난길에서 엄마가 몸을 팔아 먹거리를 얻고 언니가 겁탈 당할 위기에서 엄마와 함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준은 목사 부인인 실비를 만난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가 태어나면 동생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549)”고 생각한다. 죄책감의 근원이자 살아남은 이유인 죽은 동생을 버린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비가 늘 곁에 두던 『솔페리노의 기억』에서, 참상 후에도 “살아있는 자체가 완벽한 고문(347)”이라는 내용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준은 생각한다. 실비가 작가라고 생각했던 준은 실비를 자신의 같은 처지라고 인식한다.

실비와 관계를 맺은 준은 몸의 변화를 겪는다. 가족처럼 기댈 대상을 얻고 동생에게 다 못한 보살핌을 실비의 자녀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준은 이제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 실비 부부에게 입양되기 위해 허기를 참으면서 준은 “기쁨이나 고통 따위는 자신의 외부, 자신의 예전 모습에만 존재하는 것 같(599)”이 생각한다. 이 말은 가시 돋친 몸과 허기가 벗어나고픈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과거를 벗어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지만 생존이라고 생각한 준은 자신의 몸을 통제한다.

이런 희망 속에서 준은 “몸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또 다른 몸(466)”을 느낀다. 여성의 몸을 거부하며 단순한 시선에도 가시를 세웠는데 몸의 욕망이 열린 것이다. 이 욕망을 실험하기 위해 준은 사내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엿볼 수 있게 해본다. 결과는 강렬한 시선이 욕망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열한 살에 피난을 떠나 이제 열네 살이 된 그녀의 몸은 다시 성장을 시작한다. 실비와 헥터의 관계를 엿보며 준은 욕망을 더욱 실감한다.

두 사람이 몸을 섞는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몸의 다른 부분은 묵직하게 느껴지면서 감각이 없어졌는데 유독 아랫배만 생상하게 살아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랫배가 묘하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다.(464쪽.)

준에게 육체적 욕망은 아랫배로 집중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준은 헥터의 몸이 아니라 실비의 몸에 관심을 갖는다. 여성으로서 몸은 여전히 무의식으로 거부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실비의 몸을 탐하기도 한다. 허기를 참고 있을 때 아랫배를 통해 성적 욕망이 열리는 것은 상징적이다. 준에게 실비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동료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이중적 위기감을 벗어나게 해줄 대상이다.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는다. 실비 부부가 자신을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실비는 생존을 위한 디딤돌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요 사치품(456)”이었기 때문에 준은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럼에도 고통처럼 욕망이 다시 찾아와 자위를 하게 되자 준은 그 욕망이 자신의 미래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몸의 욕망에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준은 목사가 마음을 바꿀까 하여 헥터가 마치 자신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하기도 한다. 엄마가 몸을 수단으로 삼은 것과 같다. 하지만 실패하고 준은 다시 맹렬한 허기를 느낀다.

굶주림, 그것이 다시 준을 찾아왔다. 하지만 피난길에서 오빠, 언니, 그리고 쌍둥이동생들과 함께 행렬에 파묻혀가다가 결국은 혼자되었을 때 느낀 굶주림과 달리 이번에 찾아온 굶주림은 숨어있는 망각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 중 누구도 굶주림 자체에 굴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굶주림은 그들을 극도의 피로와 부주의, 그리고 결국에는 위협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굶주림이 자신에게도 똑같은 것을 할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결국에는 가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떠밀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피해 달아나거나 몸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일종의 댄스파트너로, 즉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고 관찰하는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굶주림이 자신의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며 순수하고 확고한 의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준은 아무 것도 먹지 않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본능으로 행동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불안함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때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공허함과 거리가 멀었다,...그것은 그녀의 보다 참된 모습, 보다 다듬어진 모습이었다.(587-588쪽.)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한 그녀는 다시 한번 허기를 통제해본다. 그러나 채울 수 없는 허기는 금방 원래 모습을 드러낸다. 실비가 모르핀을 꿇고 금단현상을 드러내며 아무 것도 먹지 못하자 들고 간 음식을 먹은 것이다. 보다 참된 모습을 잠시 맛보았지만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함을 의미하는 몸의 허기는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미친 듯이 호흡을 하는 것과 같았다...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그녀의 몸이었다. 몸은 그녀의 시야를 불투명한 눈가리개로 가리고 있다...하지만 준은 모두 먹고 수치심을 느꼈다...뒷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먹은 것을 게웠다. 토사물의 냄새는 역겹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음식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먹은 것

을 좀 더 게워내야 했다.(608-609쪽.)

결국 실비 부부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과 준은 죽음을 택한다. 자신이 동생들을 기차에 타게 해놓고 떨어져서 죽어가는 동생을 버리면서까지 살아남았는데도 준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피난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 준이 느끼는 새로운 허기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더욱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보기 흉한 자신의 마음이었다.(614)” 준은 “죽음보다 몸의 횡포가 훨씬 더 싫”고 “몸과 지긋지긋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진정한 삶(546)”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워낸 음식을 달콤하게 느낀 것과 통한다.

다리불구가 된 민은 준의 동생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동생 같은 숨소리를 내는 민을 안으며 준은 비어 있는 아랫배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아랫배는 동생을 잃은 전쟁의 고통이 드러나는 장소인 것이다. 그런데 준과 함께 지른 불 때문에 동생 같은 민이 죽고 준은 또 다시 혼자만 살아남게 된다. 그럼에도 준이 몸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실마리는 굶주림을 재의미화하고 몸의 횡포를 깨달은 데 있다. 이는 고아원 화재 때 소중한 것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데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민과 죽음을 택하며 난로에 들의 모든 물건을 던질 때이다. 실비에게 선물 받은 책까지 불에 던진 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준은 망설임 없이 맨손으로 책을 불구덩이에서 꺼낸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준은 한순간 자신의 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몸이 쇠가 아니라 쇠를 녹이는 도가니 같았다. 책을 움켜쥐었을 때는 번개가 몸 구석구석을 환하게 훑고 지나는 느낌이었다...소름 끼치게 부풀어 오른 피부는 반쯤 녹아내린 피투성이의 왁스 같았다...손의 통증 때문에 몸 전체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만큼은 말짱했다.(622-623쪽.)

몸의 훼손은 전쟁서사에 흔히 등장한다. 전쟁의 비극을 가장 상징적으

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몸은 전쟁 비극을 체험한 사람답다. 하지만 ‘~답게’ 만들어진 주체는 비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준의 신체훼손은 자신의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입었다. 그 깨달음은 실비가 선물한 책의 의미인 우정, 즉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다. 준의 몸이 훼손된 이유는 자신의 깨달음을 수행한 때문이다. 준은 몸의 황포와 싸우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인식하였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상처를 입는다. 이는 준이 몸의 주체가 될 가능성으로서 몸에 새겨진다.

공간 역시 몸에 영향을 미친다. 고아원의 예배당은 민이 폭력을 피해 숨던 잠자리이며 준과 민이 죽음을 택한 장소이다. 그 모습은 보통 예배당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다. 길다란 관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실비는 이곳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죽은 자를 위한 진정한 애도의 장소가 실비가 생각하는 예배당이었기 때문이다. 실비는 그 내용이 담긴 책을 준에게 선물하였다. 준은 몸을 바쳐 책을 구하고 나중에 죽음의 장소로 솔페리노 교회를 택한다. 실비의 우정과 실비 부부의 이타적인 죽음, 솔페리노 교회의 정신이 준의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다.

실비 부부는 불난 예배당에서 민을 구해 품에 안고 마지막을 맞는다. 민은 소망대로 목사 부부의 자식처럼 품에 안겨 죽는다. 부부와 민이 죽은 다음 준은 헥터를 따라 미국으로 간다. 준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두 번의 공간 이동은 모두 헥터가 길잡이이다. 헥터는 피난길에서 죽어가는 준의 생명을 구했으며, 오로지 준을 위해 결혼 형식을 빌려 미국으로 데리고 간다. 준은 고아원의 불난 예배당에서 살아남아, 죽으려는 헥터를 들쳐 업고 나왔다. 준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생명줄인 헥터를 살린 셈이다. 이를 통해 준의 삶과 죽음은 어떤 방식이든 헥터와 궤적을 같이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 뉴욕: 흔적 없는 정주와 거부하는 몸

미국에서 준은 골동품상이라는 직업을 갖는다. 준의 생각에 골동품상은 구조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한다. 메트로-폰티에 따르면 상황 없는 자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 사물처럼 놓여지는가에 따라 자신의 자유가 결정¹⁹⁾된다. 준은 생존의 상황에서 거짓말을 만들어 생활을 영위한다. 상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이는 아들 니콜라스가 7살부터 이유 없는 도둑질을 시작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혼자 살아남을 능력을 갖추었다고 안심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혼자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짓말과 도둑질, 급박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라 보는 것은 여전히 전쟁 때의 생존관이다. 준은 미국에서도 전쟁 때의 생존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준의 거주지에서도 드러난다. 준은 매우 변화한 곳에 있어 완벽히 고독할 수 있는 아파트에 산다. 자신이 없어져도 모르는 곳이다. 자신이 사라져도 흔적 없는 장소를 원하던 준이, 죽음을 준비하며 이야기로 남을 일을 한다. 막 결혼한 경비원이 자녀를 가질 것이라 기대하고 아들이 쓰던 고가의 골동 가구와 넓은 집을 얻을 현금을 남기는 것이다. 자신이 떠난 후 알게 하지만 준은 경비원 부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비원은 콩고 출신의 디아스포라로 내전에서 얻은 상흔을 얼굴과 손에 지니고 있다. 준은 실비에게처럼 살아남은 동지의식을 경비원에게 느끼는 것이다.

아파트를 처분한 준은, 문을 닫아 창고같이 보이는 골동품 가게에 무단거주자처럼 머문다. 이때 준의 몸은 마치 골동품 같다고 표현된다. 골동품은 이야기로 가치가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준이 경비원 부부의 이야기로 기억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19) 심귀연, 『신체와 장애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메트로-폰티와 푸코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82집, 새한철학회, 2015, 16쪽.

것을 알고 경비원이 깜짝 놀라는 장면은, 유일하게 자신을 이야기로 기억할 사람 역시 준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경비원에게 기억되는 준은 미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행위이다. 고교 졸업 이후 여행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기 위해 준이 헥터를 찾으려 하면서 사물처럼 보이던 준은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신은 몰랐지만 헥터는 니콜라스의 아버지이다. 준은 고아원에서 다음 생애는 가족과 다시, 이번 생애는 실비와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실비의 자녀를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겠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잃은 비극적인 상처는 남은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의 의미를 대신하던 실비가 죽고 동생 같던 민도 죽었다. 그럼에도 준은 다시 생존의지를 다지며 고통을 모르는 몸과 비상한 생명력을 간직한 헥터를 아버지로 택하여 자신의 아이를 갖는다. 그래서 헥터가 비자발적으로 준과 관계를 맺으며 무언가 뺏기는 것 같다고 느낀 것이다. 둘의 이야기는 실비의 상실에 더해 아들 찾기로 이어진다.

전술한 것처럼 만들어진 역할은 ‘~답게’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준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준은 임신 내내 입덧을 하며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이에게 나쁜 생각을 한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밤에 잠꼬대를 하면 영원히 돌봐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괴롭다. 가끔은 감정 주체가 안 돼 불합리하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대하기도 한다. 어머니로서 역할에도 가시가 돋친 것이다. 준은 스스로가 “아들의 가장 해악자(337)”라고 규정할 정도로 엄마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 해악이 극심하게 드러난 것은 위독한 아들의 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무시하는 장면이다. 자신이 아들을 죽게 내버려두었다는 죄의식은 이후 돈을 요구하는 가짜 아들을 의심하면서도 송금하는 것으로 덮는다. 죽어가는 동생을 버리고 살아남은 죄책감은 아들을 최선으로 돌보지 못하게 했지만 아들도 동생처럼 죽게 내버려두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죽게 내버려둔 동생은 아들과 동일시되고 이는 또 중

양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된다.

준은 47살의 나이에 종양을 발견한다. 뱃속의 종양은 까다로운 위치에 보이지 않게 생겨났다. 아이러니하게 “덩어리가 커져서 배를 완전히 채우면 죽(83)”는다. 전쟁 때의 허기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다. 허기는 채워야 살지만 종양은 채워지면 죽는다. 삶과 죽음의 의미가 만나는 것이다. 준의 전쟁 체험자로서 흔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²⁰⁾. 외부의 흔적은 시선을 부르고, 시선으로 구별되는 흔적은 대상을 사물화하거나 타자의 기준으로 판단된다. 즉 시선의 틀에 갇히는 것²¹⁾이다. 그런데 준의 몸에 남은 전쟁 흔적은 내부의 종양이다. 그런 면에서 준의 몸에 종양으로 드러나는 흔적은, 타자의 시선으로서가 아니라 준 자신의 재현이며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의철학²²⁾에 의하면 심리신체적인 측면에서 질병은 살지 않은 생명의 표현이며, 살지 않은 생명은 억압되고 해결되지 못한 생명의 문제들이다. 따라서 자의식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환자가 질병, 혹은 병든 몸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픈 몸을 경험하는 심리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환자의 해석이나 의미부여 등을 읽는 것이다.

준이 동생과 아들, 종양을 일체처럼 느끼는 것은 삶 전체에 전쟁 체험이 드리워 있다는 의미이다. 환각에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미국에서 낳은 아들을 동생과 동일시하고, 종양을 동생이나 실비 등과 한 몸으로 여기는 스스로의 해석은 준이 여전히 전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정주의식을 느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준은 한국 역시 기억이 없다. 아들 때문에 억지로 한국음식을 먹으러 가면 준은 고아원 때처럼 구토를 하지만 한국에 대해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준의

20) 손에 입은 화상은 전쟁으로 인한 것도 아닐뿐더러 다른 사람은 쉽게 보지 못한다.

21) 심귀연, 앞의 논문, 9쪽.

22) 강명신, 『몸의 심리신체성과 병든 몸의 자아』, 『의철학연구』 9권 9호, 한국의철학회, 2010, 81-83쪽. 참조.

삶의 장소는 스스로의 몸이며 의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자신에게 내리는 처벌이고 고통에 감사하며 생의 이유인 고통에 미련을 갖는다.

몸의 기억에 거하는 것은 곧 거부하는 몸으로 이어진다. 무엇을 거부하는지 목적어를 비워둡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먼저 전쟁의 이중피해자로서 몸의 여성성을 들 수 있다. 고아원에서 실비에게 동성애적 감정을 느낀 것과 뉴욕에서 여성을 집요하게 유혹해 남성으로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 남편 데이비드가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늘 여성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하는 내용에서 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여성성을 입히려는 심리가 드러난다. 모성과 한국 음식, 치료 역시 몸이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이런 거부하는 준의 몸을 더욱 의식과 겹치게 한다. 죽음을 맞이할 때 신체와 자아는 직접적 관계를 맺고 신체는 주체로서의 신체가 되기 때문이다²³⁾. 그러므로 헥터와 죽음의 노정을 잇는 동안 준의 몸은 전적으로 준의 생각과 의지, 체험의 경험화로 이야기되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3) 이탈리아 솔페리노: 애도의 장소와 공존하는 몸

준이 헥터를 찾고 헥터가 비참한 만남에 응하는 것은 ‘실비와 아들 니콜라스’ 때문이다. 헥터는 니콜라스가 자신의 아들이란 것을 알고 양가 감정을 갖는다. 먼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 주변에 죽음을 물고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불행한 결합이 낳은 피에 대한 본능적 호기심도 생긴다. 하지만 아들 니콜라스는 죽고 없다. 따라서 그 만남은 온전히 준과 헥터에게 의미를 지닌다. 준과 헥터는 결국 서로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고 체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²⁴⁾은 동일성과 자기성을 두 요소로 삼아 변화하며 만

23) 위의 논문, 86-88쪽. 질병에 이환된 신체를 자아가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셀리 게도우의 현상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둔 곳 참조.

24) 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 질문이 어울리는

들어진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자기성은 이야기됨으로써 드러난다. 체험 역시 이야기됨으로써 성찰이 더해진 경험이 되고 주체적 대응의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헥터와 준이 봉인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형성되는 이야기 정체성의 근간이다. 그리고 주체적 인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렇게 둘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노정은 녹록하지 않다. 헥터는 “원인이자 징후이자 질병(419)”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로의 모든 것이 죽음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헥터에게 준은 유령 같고 호텔 방은 감옥이나 관의 모습, 지나는 마을도 버려진 동굴이거나 묘지 같다. 준의 신체 고통과 생존의지를 부러워하는 헥터는 준의 보호자이면서 보호받는 것 같기도 하다고 느낀다. 이는 헥터의 의식이면서 준의 상황을 보여준다. 준은 몸만 죽어가고 헥터는 몸만 살아있는 것이다. 헥터에게 준은 여전히 고아원의 아이 같고 준의 생존의지는 두렵기까지 하다. 헥터의 부러움과 두려움은, 화재가 난 고아원에서 준이 불가능한 힘으로 헥터를 구해낸 것과 연결되어 의미가 생긴다. 준과 헥터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것이다.

어둠이 세상에 깔리자 도로는 고요해졌고 비행기들도 다양한 방향으로 다가와 착륙했다. 그제야 그녀는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변상황이 모두 험하고 냉혹했기 때문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방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특이하게 들렸다...그녀의 몸은 30년도 더 전에 길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쫄라들

정체성이다. 반면에,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정체성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시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렇기에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실존적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narrative)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일상 공간을 구성하는 작은 이야기이다. 박승규,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 지리학회지』 48, 대한지리학회, 2013, 455-457쪽, 참조.

어 있었다.(416-417쪽.)

어느 정도 노정이 흐르자 준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는 헥터의 시점으로 기술된다. 준을 구하기 위해 고아원으로 앞장서던, 그리고 준을 미국으로 데려 온 헥터의 역할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준은 고아원 화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비의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헥터는 자신 때문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오갈 데 없어진 준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결혼하여 미국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도 헥터는 자신의 잘못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실비를 잃은 아픔은 같았다. 헥터와 준은 경험을 나눔으로써 공감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야기를 한 덕분에 준은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던 실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비에게 위로이자 구원의 장소, 자비의 완성인 솔페리노에 가서 죽음을 맞기로 결심한다. 실비의 진정성을 기억하고 자신의 고통을 주체적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실비는 “자신이 항상 믿었던 모습(611)”의 준이 되었다며 책을 선물했었다. 준은 실비가 그리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 마지막은 헥터의 생명력과 함께할 것이다. 이제 준은 헥터를 우호적으로 바라본다. 이전에 그랬듯이 헥터의 생명력은 준을 살릴 것이다.

미국에서 날아온 뒤로 그녀는 헥터가 잠을 자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다...헥터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원기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몸에 내려진 사망선고가 잠시나마 유예되는 느낌이었다.(444-445쪽.)

헥터는 갑작스런 제안에 반대했지만 죽어가는 준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 솔페리노로 가던 중 헥터가 찾은 오두막은 준에게 고아원의 숙소 같이 느껴진다.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던 준이 먹은 음식은 헥터가 만

들어준 스프였다. 역시 고아원에서 만들어주던 스투 같다고 준은 생각한다. 준은 헥터가 과거처럼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끌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화해하듯 준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편안히 잠이 든다. 허기와 가시뿐 아니라 질병의 고통까지 모두 잊었던 시간이었다. 꿈에서 준은 자신의 종양들이 피후견인들이고 그들이 죽음을 선물한다고 생각한다. 죽어가면서도 감사해 하며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준이 전쟁기억과 공존함을 보여준다.

꿈은 대체로 과거 기억과 연관이 있으며 시공간을 넘어 과거 흔적을 되살린다. 몸의 기억은 주체의 현재 경험과 사유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²⁵⁾. 돌보지 못한 대상들과 종양의 동일성은 준의 의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미지²⁶⁾이다. 따라서 준의 몸은 각인된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과거가 재구성된 주체의 의미화 작업이다. 준을 지탱하는 것은 통증이며 스스로도 통증을 통해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 자기 몸에 들어와 들쭈시고 다니는 듯, 꽃병을 들고 방마다 들어가서 집어던져 산산조각 내는 듯하다(395)”고 느끼는 것은 고통이 살아남은 자신에게 주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각으로 드러나는 사후작용은 기억의 두 가지 요소, 몸의 흔적과 현재의 경험을 고려할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본성을 좀 더 역동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해 준다²⁷⁾. 준에게 전쟁 기억은 한 몸에 사는 것이면서 스스로를

25) 김석, 『몸의 기억과 환상-사후작용의 논리를 중심으로』, 『기억과 몸』(몸문화 연구소 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8, 70-71쪽 참조.

26) 의사의 하얀 가운을 입은 아이가 애늬은이 같은 작고 쭈그러든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칠 정도로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그 애는 니콜라스였을까? 아니면 남동생 지영이었을까?...최근에 그녀는 그런 환각과 그 외의 여러 환각 증상을 경험했다. 그녀의 환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말을 거의 하지 않거나 일절 하지 않고 다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355쪽) 이런 환상은 종양과 실비, 준 자신을 동일시하는 내용으로도 나타난다.

27) 위의 논문, 64쪽.

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생이(거나 아들, 실비인)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지는 것은 고통이 준을 구하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떠나지 못하고 자신과 머무르는 유령은 준을 전쟁에 갇힌 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갇혀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름을 붙여주며 그들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장소로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준의 몸은 애도의 장소이기도 하다. 죽었지만 죽지 않은 타자를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도이기 때문이다²⁸⁾.

오두막을 통해 고아원에서의 몸성을 벗어나고, 또 자신의 몸에 종양으로 남은 전쟁 기억과 기꺼이 껴안는 것은 준이 주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기반이다. 죽음은 한계상황으로서 의식이 더욱 충실화되는 것이라는 야스퍼스의 주장처럼,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의 한계상황을 뛰어넘는 실존적 자기의식을 충실화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양식²⁹⁾인 까닭이다. 따라서 신념의 상흔이 미국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처를 입은 이유와 행위 장소인 한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슬페리노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결심은 준의 존재양식이 된다. 그리고 슬페리노의 의미는 그 존재양식의 전제이며 배경이다.

슬페리노는 애도의 공간이다. 애도공간의 특성은 단순히 죽음을 기리는 추모를 넘어 상실한 타자를 위해 슬퍼하고 기리기 위해 관람자에게 비가시적인 타자와, 상실 또는 죽음을 가시화하여 경험하게 하고 지각하게 하는 것³⁰⁾이다. 슬페리노는 벽면을 장식하듯 도열지어 있는 유골, 부위별로 나뉘어 담긴 유골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시화한다. 교회 자체가 “성스러운 유골이 진열된 성해함(259)”이다. 적십자사 창설의 계기가 된 슬페리노 전투의 비극은 슬페리노 교회를 통

28) 원예진 외 2인, 「고유한 신체의 경험을 통한 애도공간 특성 연구-메트로-폰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권8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596쪽

29) 최은주, 『죽음, 지속의 사라짐』, 은행나무, 2014, 16-19쪽 참조.

30) 원예진 외 2인, 앞의 논문, 604쪽.

해 진정으로 애도되었다.

준에게 솔페리노는 실비와 가족, 자신과 아들, 헥터까지 함께하는 장소이다. 헥터 덕에 다시 준의 수중에 들어온 『솔페리노의 기억』은 이 모두를 엮는 고리이다. 책을 선물하던 실비의 말대로 준의 모습은 준의 강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준이 마지막 죽음의 장소로 솔페리노를 택하는 것은 자신이 고통으로 품고 있던 피후견인인 동생과 아들(이제 준은 아들에게 용서받고 싶어 한다.)을 애도하는 의미이다. 죽음의 끝을 보지 못해 보내지 못했던 가족들에게도 애도의 기회를 가지며, 의롭게 죽어갔던 실비를 애도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준의 질병의 몸 역시 애도 받으며 기억과 함께 떠날 수 있다. 기억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 고민처럼 부대끼면서 껴안고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이며 존재론적 질문³¹⁾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입을 악물고 혼잣말을 주절거렸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해온 행동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의 버릇이었다...

“이제 예전의 전쟁 때로 돌아간 거야. 동생들과 기차를 타고 오면서 끔찍한 일을 겪었지. 길에서 헥터를 우연히 만났고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아와 공포에 포위되어 있었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고 결국 이겨냈어.”(509쪽.)

통증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택한 모습, “냉정하고 잔인한 여성으로서의 모습(510)”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준은 생각했다. 통증은 바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택한 모습이었고 그것이 되돌아와 자신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준이 마지막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혼잣말은 상처를 직시한 것에 해당한다. 준은 종양으로 기억을 껴안고 그 고통에 대해 주체적으로 자세와 태도를 정한다. 의지의 활동과 신체의 움직임은 인과적 관계

31) 몸문화 연구소 편, 『기억과 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8, 10쪽. 서문 참조.

가 아니라 발현의 관계이다. 즉 의지 작용과 의지 발현은 동일하다³²⁾. 따라서 고통에 대한 준의 긍정적인 태도는 솔페리노의 의미를 강화한다. 죽음의 고통을 껴안고도 초인적 의지를 발휘해 솔페리노에 도착한 준의 존재양식은 준이 애도를 통해 죽음으로 진정한 삶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준의 마지막은 헥터에게도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고통은 준이 생존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헥터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삶의 의지를 방해하는 조건이다. 전사자 처리반에서 일했던 헥터는 죽기 직전의 모습이 더욱 괴기스럽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준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헥터는 준이 살 수 있다면 “처지를 바꿔 자신은 죽고 그녀를 살릴 생각도 있다.(658)” 이에 더해 준이 “남자는 좋은 후견인이 있어야 한다.(653)”고 말할 때 헥터는 그 후견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헥터가 진정으로 준에게 공감하면서 다시 둘의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것이다.

고아원에서 헥터가 실비를 안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들의 관계에 분노와 욕망을 느꼈던 준은 실비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당으로 들어간다. 헥터에게 실비는 구원이자 삶을 이어갈 의미였기 때문에 이제 헥터는 준의 뜻을 이어 살아가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준은 헥터 앞에서 별 거벗은 몸이 아무렇지 않고, 헥터는 준의 배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본능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느낀다. 고아원에서 몸의 욕망이 성숙하던 장소 역시 준의 아랫배였다. 준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뿐 아니라 가시 돋친 몸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더 나아가 헥터가 자신들이 신혼부부 같을 것이라고 했던 생각은 준의 수의를 입히는 데에서 강화된다.

헥터는 준을 침대에 앉히고 실물 크기의 인형에다 옷을 입히는 것처럼

32) 이진영, 『쇼펜하우어의 신체개념 연구』, 『범한철학』, 88집, 2018, 239쪽.

럼 그녀의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가며 옷을 입혀주었다. 파자마 스타일의 품이 넓은 치마, 저고리, 조끼 등 모두가 꺼칠꺼칠한 삼베로 만든 하얀색 옷가지들이었다. 그녀는 마치 종이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격식을 갖춘 복장이라 그런지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 위아래로 온통 하얀색으로 차려입으니 그녀는 이상한 신부처럼 보였다. 속이 비치는 옷감을 입고 있어 가슴의 거뭇거뭇한 젖꼭지와 두 다리 사이의 거뭇이 흐릿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것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 있는, 여전한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다.(658쪽.³³⁾)

메를로-퐁티는 몸을,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매듭점으로 보았다. 자신이 내부적 본질로서 규정한 것들은 몸의 경험을 통해 마치 상처에서 피가 나듯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외부의 경험은 몸에 의해 번역되어 어떤 심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때 의미는 사유활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활동이 만들어낸다³⁴⁾. 따라서 준이 비현실적 의지로 죽음을 미뤄가며 자신의 의식대로 솔페리노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준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제 눈도 보이지 않는 준의 몸을 안고 예배당에 들어서며 헥터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곳(660)”이라고 말한다. 둘의 이야기 정체성은 ‘우리’라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곳은 기억과 화해하고 전쟁의 비극, 죄책감 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처일 것이다.

실존의 진정한 변형은 몸이 가질 수 있는 변형이다. 그것은 고유한 몸이 현행적인 개체성에 한정되지 않고 잠재적이고 가능한 익명적 몸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³⁵⁾이다. 이런 의미에서 준의 몸이 이루는 화해는 보편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확장자는 헥터가 될 것이다. 타인의 죽음과의 관계에 정서적으로 개입하면서 비로소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세계 속의 자신, 자신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³⁶⁾이다.

33) 강조는 연구자 표시임.

34) 정지은, 『환상지 현상, 세계의 기억과 몸』, 『기억과 몸』(몸문화연구소 편), 116-119쪽 참조.

35) 위의 논문, 125쪽.

36) 최은주, 앞의 책, 21쪽.

준의 죽음은 피후견인들과의 융합으로 책임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애도로 주체성을 확보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헥터에게는 생을 이어가려는 의지로 이어질 것이다. 인간성을 말살하는 전쟁에의 대응은 고통의 최소화이고, 그 방법은 생존의지와 진정한 애도이므로 준과 헥터는 전쟁의 ‘생존자’로 거듭난다.

그들의 뒤로 기차의 3분이 1만 남아 있었다...

“날 찾으러 돌아 올 거야?”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는 거지?”

준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안 와도 돼.”

...동생의 곁을 가능한 한 오래 지켰다. 하지만 마지막 객차가 스치고 지나갈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의 중심을 잡은 다음 오직 살아남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47쪽.)

아직 끝이 아니었다.

준은 기차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그녀는 맨발이었다.

전신을 뒤덮은 통증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두 다리는 피스톤이 되어 그녀가 평생 달려온 이단 거리를 완주하도록 그녀의 몸을 미친 듯이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준은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지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자신은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을 갈망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숨을 멈춘 채 문의 시커먼 모서리를 행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뒤쪽으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멀어졌다. 누군가가 그녀를 끌어올려 품어주었다. 그녀는 지면에서 발을 뗐다. 살아남은 것이다.(660쪽.)

살아있다는 것이 몸의 움직임이라면 죽음은 움직임이 멈춘 상태이다. 따라서 마지막 장면은 묘하게 죽음과 삶을 병치한다. 지면에서 발을 떼어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는 장면은 준의 죽음이며 동시에 살아남음

이다. 준의 마지막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몸이자 자아 자체인 몸이며 주체이기도 하다. 몸이 죽음을 맞이할 때 몸과 자아는 직접적 관계를 지니며 신체적 자아, 즉 주체로서 신체가 되기 때문이다³⁷⁾. 전쟁의 희생자, 항복자로서 몸은 자신의 의지를 재현할 수 없는 탈주체적 신체에 그친다. 하지만 준은 주체적 신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헥터에게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생존자로서 주체성을 수행할 준이 올라탄 기차에서 손을 잡아주는 이는 전쟁에서 준을 살린 헥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전쟁 보편과 만나는 한국전쟁의 기억

준은 고통이 심할 때마다 전쟁 때 기차에서 겪은 끔찍한 고통을 되새기며 참아낸다. 살아남았고, 살아내야 했고, 살고 싶었던 준의 삶에서 희생자의 죽음은 배경이며 동력이다. 그 생존본능은 어린 마음에도 무자비하고 가혹한 모습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고아원에서 폭식과 구토로 드러났던,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몸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한편 준이 가족이자 동지로 여겼던 실비와의 관계는 멈췄던, 여성으로서 준의 몸을 성장케 한다. 하지만 실비가 죽고 준은 모든 근원이 파괴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와서 삶을 영위한다. 아들을 낳고 성공적인 생활인이 되고 새 가정도 꾸리지만 이 모든 것은 정주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다.

대신 꿈이나 환각으로 과거와 만나면서 자신이 재구성한 기억의 이야기를 듣는다. 종양(동생이자 실비이자 아들인)으로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맞게 됐을 때 준이, 마치 엄마처럼 종양이 있는 배를 어루만지는 것은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 준의 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37) 강명신, 앞의 논문, 86-87쪽 참조.

과거를 애도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애도의 장소인 슬페리노를 찾아 죽음의 의식을 치르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애도가 된다. 죽음의 끝과 이유를 알지 못해 제대로 애도할 수 없었던 가족, 실비, 아들 모두를 애도하면서 준은 마지막을 맞는다. 마지막에 올라탄 기차가 저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삶이라면 끌어올려준 이들은 애도 받은 모두 일 것이다. 기차에서 준을 끌어올린 사람은 준을 살리는 헥터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의 죽음이 첫 장의 생존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준의 생존의지가 헥터로 이어지리라 유추할 수 있는 근거이다.

몸이 사회 질서를 무의식으로 실천하는 장소라면 개인은 몸을 통해 사회를 수용하고 반복하며 그 사회의 관습과 가치를 체화한다. 그러나 이에 순응하지 않고 주체적 의식이 몸으로 실천된다면 저항하는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³⁸⁾. 준은 생존을 위해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거부하고 여성으로서 몸에 둔았던 가시를 벗어나는 노정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억압성에 더하여 여성의 몸이 갖는 이중피해자로서도 주체성을 발휘한 것이다. 준은 무의식의 장소이자 자아의 근거로서 몸이 재현한 전쟁 기억을 애도하고 기꺼이 함께함으로써 책임과 성찰을 완수한다. 따라서 준의 몸은 저항하는 주체이다.

준에게 한국전의 초점기억은 생존을 위해 죽어가는 동생을 버린 일이 었다. 준은 초점기억의 고통을 끊임없이 변주하는 이야기 주체로서 모두를 애도하는 죽음을 완수했다. 하지만 준은 여전히 ‘생존자’이다. 기차에 올라탄 다음 펼쳐질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과거를 담은 준의 몸이 우리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준의 몸은 죽음을 수행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웠다. 경계에 위치한 디아스포라의 몸이 시간과 생사, 주객을 해체하며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38) 윤조원, 『여성의 교환과 상징적 폭력』, 『여성의 몸』(한국여성연구소 저), 창비, 2005, 103-114쪽 참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설적 해체는 전쟁 보편의 장소에서 다시 한국전쟁이라는 원점으로 회귀한 순환이다. 클라우제비츠의 말대로 “다른 모든 사회활동처럼 전쟁도, 그 사회적 토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므로 전쟁의 보편적 성격과 함께 드러나는 개별 전쟁의 성격이 있다.³⁹⁾” 그렇다면 한민족 디아스포라로서 준의 몸은 한국전쟁의 개별적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그런데 ‘잊힌 전쟁’이라는 모순된 명칭으로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미국에서 살다가 결국 전쟁을 애도하는 상징적 장소, 솔페리노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이 완성되는 기차는 한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야했던 기차이다. 삶과 죽음뿐 아니라 전쟁 보편과 한국전쟁의 개별성이 만나는 것이다.

전쟁 중인 첫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결말은 끝나지 않는 전쟁을 의미하면서 전쟁 휴전 상태가 지속되는 한반도를 떠올리게 한다. 전쟁기억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방치하거나, 헥터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죽음들이 발생하고, 마지막까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것은 전쟁과 죽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앙리 뒤낭의 말은 그래서 더욱 와 닿는다. 따라서 고통의 기억에서 그치지 않고 고통 받으며 찾아낸 진실을 실존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전쟁기억서사의 가치가 된다.

끊임없는 성찰로서 드러난 몸의 경험은 흔적과 유사성을 통해 이어지며 주체와 함께 성숙한다. 경험의 주체가 되면 체험자로 머무르지 않고 확장된다. 『생존자(The Surrendered)』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몸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의 체험을 공적인 차원의 경험으로 확장하며 독자 역시 경험의 주체로서 전쟁을 성찰하게 한다. 그러므로 전쟁의 추악한 본질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남은 자의 몫일 것이다. 그것이 『생존자(The Surrendered)』의 의의이며 데이턴 문예평화상을 받은 힘일 것이다.

39) 김장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역사』, 『역사와 세계』, 53, 효원사학회, 2018, 308쪽.

40) 허재훈, 앞의 논문, 371쪽.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이창래, 나중길 역, 『생존자』, RHK, 2013.

2. 참고 논저

강명신, 「몸의 심리신체성과 병든 몸의 자아」, 『의철학연구』 9권 9호, 한국철학학회, 2010, 67-92쪽.

구은숙, 「전쟁, 이주, 트라우마: 아시아계 글로벌 서사로서 이창래의 『항복한 자』」, 『미국학논집』 48권3호, 2016, 5-32쪽.

김미현, 「이창래의 『항복자』에 나타난 생존의 의미」, 『미국학논집』 47권 1호, 2015, 5-27쪽.

김선영, 「데카르트에서 무의식 - 몸과 기억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39집, 2014, 269-295쪽.

김장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역사」, 『역사와 세계』 53, 효원사학회, 2018, 277-318쪽.

노은미, 「폭력의 기억 : 『항복자』에 나타난 저항의 심리학」, 『현대영미소설』 18권3호, 2011, 51-72쪽.

노종진, 「전쟁 트라우마와 생존을 위한 존엄한 투쟁 : 이창래의 『생존자』」, 『현대영미어문학』 33권2호, 2015, 1-21쪽.

몸문화 연구소 편, 기억과 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8.

박수정, 「자비의 종교: 이창래의 『투항자』에 나타난 투항과 구원」, 『문화와 종교』 24권2호, 한국문화와 종교학회, 2019, 27-49쪽.

박승규,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 지리학회지』 48, 대한지리학회, 2013, 455-457쪽.

베셀 반 데어 콜크, 제호영 역, 『몸은 기억한다』, 을유문화사, 2016.

- 송명희, 「이창래의 생존자에 재현된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 치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115-145쪽.
- 신영현, 「전쟁과 외상, 포크너와 이창래의 제대군인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34권 4호, 현대영미어문학회, 2016, 61-85쪽.
- 신혜정, 「이창래의 더 서렌더드 : 집단적 외상 인식과 치유 가능성 모색」, 『영어영문학연구』 55권4호, 2013, 375-396쪽.
- 심귀연, 「신체와 장애에 관한 허상학적 연구-메를로-퐁티와 푸코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82집, 새한철학회, 2015, 2-20쪽.
- 안아람, 「기억의 서사를 통한 치유 『항복한 사람들』에 나타난 전쟁 트라우마」, 『영어영문학21』 30권 제4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7, 89-112쪽.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몸의 인문학적 조명』, 월인, 2005.
- 원예진 외 2인, 「고유한 신체의 경험을 통한 애도공간 특성 연구-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권8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593-604쪽.
- 윤조원, 「여성의 교환과 상징적 폭력」, 『여성의 몸』(한국여성연구소 저), 창비, 2005, 95-114쪽.
- 이경배, 「존재의 언어와 대화의 언어」, 『범한철학』, 제88집, 2018, 123-154쪽.
- 이진영, 「쇼펜하우어의 신체개념 연구」, 『범한철학』, 88집, 2018, 221-250쪽.
-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869-895쪽.
- 이현주, 「몸을 통한 기억의 재현과 치유」,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4.
- 장정훈, 「외상적 기억이 남긴 상흔의 치유 : 팀 오브라이언의 『칠월, 칠월』

- 월』과 이창래의 『항복자들』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22권 2호, 2015, 247-269쪽.
- 정강길, 「화이트헤드 철학의 몸삶 적용 이론 탐구 :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몸 이해 모색」, 『한국화이트헤드 연구』, 26권 26호,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13, 153-203쪽
- 진주영, 「호모 사케르의 윤리 : 창래 리의 『제스처 라이프』와 『항복한 자』 연구」, 『미국소설』 20권2호, 2013, 31-54쪽.
- 채근병, 「이창래 소설에 나타난 시간의 구조와 혼종의 가치-제스처 라이프와 생존자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2권, 1호, 국제한인문학연구, 2013, 317-340쪽.
- 최은주, 『죽음, 지속의 사라짐』, 은행나무, 2014.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4.
- 허재훈, 「경험의 구원 가능성과 개념적 전개」, 『철학연구』 151집, 대한철학회, 2019, 355-381쪽.

<Abstract>

The Korean War Reproduced in Diaspora's Mind-Body in The Surrendered

Park, Seon-Yang*

Lee Chang-rae's *The Surrendered* has been studied as Korean diaspora literature with themes of the memory, identity and universality of the separated Korean people. In this essay I will focus on the body of a diasporic person containing the memories of the Korean War.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the body showed its identity by performing true mourning with the death of the body while connecting physical pain and disease to the past. Here the body is the language of existence, which is the place of association in which consciousness is expressed. Unlike simple experiences, this is an addition of reflection to broaden the horizon of life.

The 11-year-old June, who failed to protect his dying brother on the road south, goes to an orphanage, but she eats and vomits repeatedly due to hunger caused by the sense of survival and guilt. Also, as a woman, she can't stand other's eyes and responds with violence because she recognizes her body negatively. Then, she meets Sylvie, wife of a pastor, who is likely to relieve her guilt and hunger as a family member and comrade. But Sylvie dies and Jun follows Hector to America. She gets cancer from living without a sense of settlement while trying to be completely alone. Jun is willing to

* Kunsan National University.

accept the pain by identifying the tumor with her brother, son, and Sylvie. Since consciousness is revealed by the body, the attitude toward the past is for living together in one's body. Therefore, it becomes a body that rejects things that were perceived negatively in the past.

June, hugging the past, finds Hector and talks about her memories. And in Solferino, Italy the contact point of shared memory, she begins her journey to die. It was a place of genuine mourning where one could mourn her death and past, which she accepted as punishment. Jun's indomitable will for the end and the relationship she formed during her journey serve as an opportunity for Hector to open a new path. In the final scene where death and life overlap to live like crazy, Jun's body means that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disappears and the past and the future coexist. Han June's body, which means June in Korea, records the existence of pain. In addition, the first and last chapters, which mean the universality of war, return from Solferino to the Korean War and extend the Korean people's memory narrative to reflection on the nature of war.

Key Words: The Surrendered, Lee Chang-rae, Korean Diaspora,
Korean War, Memory narrative, Momm(Mind-Body),
Mourning

■ 논문접수 : 2021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20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20일